

Korean Trail 47th Story

속리산 세조길 세속을 여인 俗離, 왕이 거닐었던 명품길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왕의 발자취를 따라 낸 속리산의 세조길은 ‘속리’(俗離)라는 이름에 걸맞게 청량한 계곡 물 소리와 맑은 산 공기, 싱그러운 산 내음에 목은 일상의 마음의 지든 때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명품길이다. 지난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천한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10선’에 선정됐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았건만(道不遠人)
사람이 도를 멀리하고(人遠道)
산은 속세를 떠나지 않았건만(山非離俗)
속세가 산을 떠난 것이다(俗離山)”

이 시는 신라 헌강왕 때 속리산 모덕암을 찾은 고운 최치원의 글이다. 고운이 읊은 그대로 속리산(俗離山·1,058m)은 그 옛날 열두 구비 말티고개를 넘어야만 닿을 수 있는 첩첩산중이었다. 이름 또한 속세를 떠난다는 뜻이니, 속리산 깊은 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시의 울림이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다.

충북 보은군과 괴산군, 경북 상주시의 경계에 있는 속리산은 최고봉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비로봉, 길상봉, 문수봉 등 9개의 봉우리가 있다. 하여 ‘구봉산’(九峰山)으로도 불린다. ‘고려사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신라 때에는 ‘속리악’(俗離岳)이라고 일컬고, 중사(中祀)가 행해졌다”라고 기록돼 있다.

예로부터 속세와 단절이 가능한 명산으로 꼽혀온 속리산은 천왕봉 코스보다는 천년고찰 범주사 쪽에서 올라가는 문장대 코스가 가장 인기 있는 등산로다. 문장대는 본래는 구름 속에 잠긴다고 문장대(雲藏臺)였으나 세조가 이곳에서 시를 읊었다 하여 문장대(文藏臺)로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속리산에는 문장대뿐만 아니라 범주사로 행차할 때 가마가 걸려 움직이지 못하자 가지를 들어 올렸다는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3호), 목욕하며 피부병을 고쳤다는 목욕소(沐浴沼), 바위 밑에 앉아 생각에 잠겼던 눈썹바위, 속리산의 배꼽에 해당하는 복천암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의 흔적이 녹아 있다.

계유정난 때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세조는 내내 죄책



속리산 세조길은 세조와 속리산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길이다. 길옆으로 1급수 맑은 계곡 물이 흐르고 상쾌한 산 공기를 마시며 어린 자녀와 함께 걷기 좋은 숲길이다. 맑은 기운이 잡사나마 일상의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준다.

감에 시달렸고 만년에는 부스럼(종기)으로 고생했다. 지난해 9월 개통한 세조길은 세조가 요양 차 스승인 신미대사가 머물던 복천암으로 순행 왔던 길로, 천년고찰 범주사에서 세심정 간 2.4km 구간이다.

여기에 나란히 이어지는 ‘오리숲’을 더하면 운치 있는 숲길이 십리를 훌쩍 넘는다. 속리산 관광단지에서부터 범주사 입구까지 걸쳐 있는 오리숲은 그 거리가 대략 2km(5리)라 붙은 이름으로, 범주사를 찾는 승승들이 걸었던 길이다.

윤태현 속리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는 “세조길과 오리숲은 서너 시간이면 충분한 코스로 여름철에는 이른 아침이나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늦게 가닐어도 좋다”며 “숲에서 단혔던 오감(五感)을 곤두세우면 평소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자연의 소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맑은 계곡에 솔향 가득한 산책로

속리산 관광단지 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오리숲 산책에 나선다. 예로부터 속리산 입구인 길 양옆으로 수령이 많은 소나무와 떡갈나무, 참나무와 서어나무가 아름드리 터널을 이룬다. 숲이 길게 뻗었고, 솔향이 수시로 코를 자극한다. 솔향이 가슴을 탁트이게 하고 마음과 몸이 한결 편안해진다. 시간을 다룰 일이 없는 마음은 느릿한 걸음으로 이어지고, 호젓함은 속세를 떠나온 듯하다. 날다람쥐, 멧돼지, 딱따구리, 물까치 등이 함께 사는 오리숲에는 황툃길 체험장과 조각공원이 있다.

보은 출생의 황귀선 시인의 ‘세월이 지나간 보은의 찬가’ 시비와 ‘환상’ ‘무제’ ‘동심의 고향’ 등의 조각 작품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다 보니 탐방지원센터와 범주사 매표소에 이른다. 세조길 걷기나 속리산 등산을 하려면 범주사 입장료(성인 4천원)를 내야 한다. 이곳에서 몇 걸음을 더 옮기면 오리숲 구간인 자연관찰로에 들어선다.

자연관찰로 안내판에는 ‘느낌으로 - 오감을 통해 자연을 느끼는 구간, 생각으로 - 자연현상의 원리를 알아보는 구간, 마음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구간’이라고 적혀 있다. ‘속리산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볼 수 있는 숲길’ ‘나무에서 소리가 나오’ ‘주변의 향기를 느껴봐요’ ‘죽은 나무는 왜 필요할까요’ ‘산수유와 생강나무 비교해봐요라는 팻말을 따라 걸으며 자연과 교감한다. 이어 현판에 ‘호서제일가람’(湖西第一伽藍)이라 쓰여 있는 일주문을 지나면 범주사 경내로 들어가는 길과 세조길 입구로 갈라진다. 범주사 구경을 잠시 미루고, 기존 탐방길 오른쪽으로 낸 세조길로 접어들었다. 윤태현 자연환경해설사는 “세심정까지 가는 기존 시멘트포장도로는 암자와 휴게소를 드나드는 차량과 마주치고 사고도 빈번해 속리산 등산객이나 탐방객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며 “포장도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세조길은 숲도 울창하고 경사도 완만해 어린 자녀와 함께 걷기 좋은 숲길”이라고 말한다.

햇살 쏟아지는 숲길, 로맨틱한 분위기의 극치

오랫동안 사람 왕래가 없던 탓인지 숲은 깊지만 평탄한 산책로가 이어진다. 햇살이 나뭇잎을 뚫고 쏟아지는 숲길의 운치란 로맨틱한 분위기의 극치이다. 국립공원 최초로 목재를 재활용한 목재 블록 길을 지나면 세조가 법주사로 행차했을 때 스님들과 담소를 나누다 자신의 잘못을 참회했던 절터에 닿는다.

임진왜란 당시 불에 타 버려 건물터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다. 권력무상, 인생무상을 느끼고 올라서면 생긴 모습이 마치 사람의 속눈썹을 닮은 눈썹바위가 있다. 속리산을 찾은 사람들이 비바람과 한낮의 더위를 피하던 장소로 세조가 바위 그늘 아래 앉아 생각에 잠겼던 자리다. 세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눈썹바위 너머로 물을 가득 머금은 법주사 수원지가 눈에 들어온다. 1급수 맑은계곡 물로 물속은 흰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투명하다. 1997년 치수사업으로 만들어진 수원지는 2014년까지 상수도 취수원으로 사용됐고, 지금은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을 비롯해 삿 등 이 관찰되고 묵납자루, 돌고기, 참갈겨니, 남생이 등 수중·수변 동

물의 보금자리다. 이른 아침이면 안개가 수면에서 연기처럼 피어나 주변의 산지락과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나무덱은 수원지 위를 지그재그로 넘나들고 1급수의 맑은 물은 탐방객의 발걸음을 더디게 한다.

탐방객들은 수정봉 그림자가 드리워진 수원지 주변의 의자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는다. 전설에 따르면 먼 옛날 당나라 태종이 세수하려는데 대야에 커다란 거북의 그림자가 보였다고 한다. 이에 놀란 태종이 한반도의 큰 거북으로 인해 중국에 재물과 인물이 모이지 않고 기운이 한반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여 그 거북을 찾다가 속리산 수정봉에서 거북 바위를 발견하여 목을 자르고, 등 위에는 탑을 세워 그 기운을 누르려 하였다고 한다. 후에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목을 주워 붙이고 등 위에 세웠던 돌탑을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나뭇가지 사이로 이따금 드러나는 파란 하늘

질은 녹음이 하늘까지 가려진 숲길 한쪽에는 고려 충숙왕 때의 김구용이 속리산에서 마음을 수양하면서 쓴 ‘속리사’라는 시가 적혀 있다. “달마암 가에 등불 하나 밝혀두고/ 문열고 향사루며 마음 다 시 맑히네/ 홀로 깊은 밤 앉아 잠 못 이루자니/ 창 앞 물소리 슬비람

과 함께 들리네”

수원지를 지나 숲길을 스치면 시멘트포장도로와 잠시 만난다. ‘법주사 1.3km, 세심정 1.4km’라는 이정표를 지나 다리를 건너면 달천계곡 오른쪽으로 길이 이어진다. 얼마 걸지 않아 조릿대와 쪽동백이 반기고 짙은 녹음이 온몸을 휘감아 돈다. 걷는 여행의 매력은 무엇보다 소리를 만나는 것에 있다. 길옆으로 천왕봉에서 발원한 계곡물이 따라오고 바위 사이로 흐르는 경쾌한 물소리는 한낮 더위를 식히는 청량제다. 막힌 속까지 뽕 뚫리게 한다.

윤택현 자연환경해설사는 “숲이 사라지면 수많은 골짜기가 비가 올 때만 물줄기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천이 돼 버린다”며 “세조길 내 피톤치드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치유의 숲 평가’에서 최고 점수인 3.0ppt/일’로 조사되었고, 음이온은 ‘2000개/cm³/일’을 초과한 ‘3290개/cm³/일’로 조사됐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런지 뽕뽕한 숲을 걷다 보면 잠시 세속을 벗어난 느낌마저 가득하다. 이따금 촘촘하게 엮힌 나뭇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난다. 길은 적당한 크기의 연못인 목욕소(沐浴沼)로 연결된다. 약사여래의 명을 받은 월광태자가 꿈에 나타나 점지해 준 이곳에서 목욕한 뒤 세조의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문득 세조는 이 길을 걸었을까 아니면 가마를 타고 갔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다.

이곳부터 기존 탐방로인 계곡을 따라 300여m 오르면 세심정이다.

이곳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오르면 복천암과 문장대이고, 오른쪽으로 오르면 천왕봉과 신선대로 연결된다. 세 번 올라야 극락에 간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문장대는 1시간 30분 정도면 오를 수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복천암까지 500m 구간에 세조길을 연장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길을 돌려 오던 길을 되돌아 ‘속세를 떠난 산에 법이 머무는 사찰’ 법주사(法住寺)로 내려왔다. 신라 진흥왕 때 창건한 법주사는 신라 시대 석등의 백미인 쌍사자석등(국보 제5호), 현존하는 유일한 목탑인 팔상전(국보 제55호), 돌로 만든 연못인 석연지(石蓮池·국보 제64호) 등 국보 3점을 보유하고 있는 명찰이다. 높이 약 25m의 미륵대불과 마애여래의상(보물 제216호), 대웅보전(보물 제915호) 등도 볼만하다.

속리산의 화강암 연봉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경내에는 소나무·당단풍나무·배롱나무·잣나무·대추나무·주목·야광나무·이팝나무·백송·모감주나무·은행나무·회양목·진나무 등이 울창하다. 법주사 경내를 대충 돌아봤는데도 시간이 훌쩍 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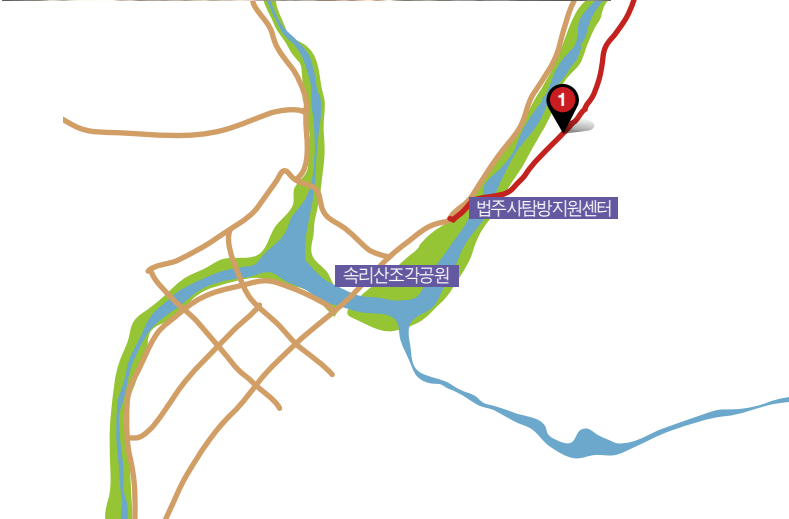
이 여름,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사색에 빠지게 하는 속리산 세조길을 걸어보는 것이 어떤지. 그곳은 세속을 떠난 ‘속리다.’ 📍





③ 직위를 막론하고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법주사 하마비는 오리숲 끝이자 세조길 입구에 세워져 있다.

② 일주문 현판에는 '호서제일가람'(湖西第一伽藍)이라 쓰여 있다. 일주문은 승(僧)과 속(俗)이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④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이고, 대웅보전과 팔상전 사이에 서 있는 쌍사자 석등은 신라 시대 석등의 백미로 꼽힌다.



① 세조길은 오리숲과 나란히 이어진다. 오리숲은 숲의 길이가 대략 '5리'에 이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오리숲 구간인 자연관찰로도 천천히 걸어볼 만하다.



⑤ 생긴 모습이 마치 사람의 속눈썹을 닮았다 하여 눈썹바위라고 불린다. 세조가 바위 그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던 자리다.

⑥ 1997년 치수사업으로 만들어진 법주사 수원지는 1급수의 맑은 물로 수달, 목납자루, 돌고기, 참갈겨니, 남생이 등 야생생물의 보금자리다.



세심정기점

⑧ ⑨ 목욕소



⑦ 수원지를 지나면 치랑과 등산객이 함께 이용하는 시멘트포장도로와 잠시 만난다. 세조길은 포장도로의 번잡함을 벗어나 호젓하게 걸기 좋은 숲길이다.



⑧ 울창한 숲과 달천 계곡을 넘나들며 길이 이어지고, 계곡 물소리는 세속의 찌든 때를 씻어준다. 청량한 산 공기를 마시며 걷는 길은 상쾌하다.

⑨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목욕한 뒤 피부병이 깨끗이 나아갔다는 목욕소. 지금도 소(沼)는 맑은 물을 달천 계곡을 따라 낙동강으로 흘러보낸다.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동화 같은 휴양지에서 여름을 즐긴다

충북 보은군 산외면 속리산 기슭에 자리 잡은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은 가족 단위의 힐링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다. 골짜기 따라 오밀조밀 들어선 알프스빌리지와 테라스하우스, 숲속의 집, 풍차의 정원이 이국적인 풍광을 연출한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속리산은 천왕봉, 비로봉, 문장대, 관음봉 등 아홉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능선이 장쾌하고 산세가 수려하여 '제2 금강' 또는 '소금강'으로 불리기도 했다. 여름에는 울창한 수림들이 진초록 숲을 이루고, 가을엔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만상홍엽의 단풍이 장관이다. '속리'라는 이름의 유래는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표율사가 이곳에 이르자 소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고, 이를 본 많은 사람이 스스로 머리 키크락을 자르고 입산수도했다고 해서 '속리(俗離)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전해진다. 속리산은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속리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은 망개나무(천연기념물 제207호)와 하늘다람쥐다.

보은군은 1999년 속리산과 구병산(876m)을 잇는 43.9km 구간에 '충북알프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로부터 이 지역에서 속리산의 천왕봉은 지아비 산, 구병산은 지아미 산으

로 불리었다.

충북알프스 끝자락 묘봉에서 뻗은 산기슭에 위치한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은 총 90ha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자연을 벗 삼아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다. 2010년 문을 연 자연휴양림은 개성 있는 숙박시설이 매력이다. 골짜기를 따라 들어서 있는 숙소마다 탁 트인 시야로 들어오는 풍경이 아름답다.

자연휴양림 맨 꼭대기에 자리 잡은 알프스빌리지는 창문을 열면 자연휴양림의 전경이 펼쳐진다. 아이보리색 벽면에 주황색 지붕을 얹은 알프스빌리지는 테라스와 정원, 바비큐 시설을 갖춘 별장식 주택이다. 1·2동은 2개의 침실과 거실·욕실, 2·3·5동은 1개의 침실과 거실·욕실로 구성됐다. 산 쪽으로 난 산책로를 따라 산림욕을 즐길 수도 있다. 알프스빌리지 바로 앞에는 휴양림 이용객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은 알프스빌리지, 테라스하우스, 황토방, 숲속의 집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매력이다. 2010년 개장해 시설이 깨끗하다. 숲 해설과 나무공작 체험 행사는 가족 단위 방문객의 인기를 끌고 있다.



야외 물놀이장이 있는데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계단식으로 구성된 테라스하우스는 넓은 테라스가 있는 3층의 건물로 테라스에 서면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스런 풍경이 그림 같다. 원룸형 숲속의 집은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숲 속에 들어서 있고, 휴양림 입구 숲속 수련관 옆에는 황토로 지은 황토방 다섯 동이 있다. 휴양림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는 이름처럼 알프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풍차 정원이 조성돼 있다. 풍차가 달린 집과 바람개비 조형물이 시선을 끈다. 숙소를 잇는 숲과 산책로에선 편백·소나무·향나무·삼나무·소나무·금계국·개망초·매발톱 등 각종 나무와 꽃들을 만날 수 있다. 김용태 숲해설사는 "숲 해설프로그램은 나이테가 어떻게 생기고, 씨앗이 어떻게 맺히고 퍼지는지 설명을 들으며 숲길을 걷고 식생을 관찰하는 생태학습"이라고 말한다. 산림휴양관 3층 목공예실에서는 목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주변 명소로 속리산 법주사와 정이품송, 보성 선 씨 99칸짜리 종가인 선병국 가옥(국가중요민속자료 제134호), 운동선수들의 훈련 장소와 트레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말티재 꼬부랑길 등이 있다. Y

Tip

[이용 방법 & 요금]

알프스 자연휴양림은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휴양 공간이다. 체크인인 오후 3시, 체크아웃은 다음 날 오전 12시. 모든 객실에 TV·냉장고·에어컨이 구비돼 있다. 침구·식기 등 객실 내 비품은 투숙정원에 맞춰져 있다. 수건을 포함한 세면도구는 지참해야 한다.

객실 요금은 성수기(7월 1일~8월 31일)·주말(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과 비수기가 다르다.

숲속의 작은집(6~8인실) 10만4천원/7만3천원

알프스빌리지(8인실) 12만원/8만4천원

알프스빌리지(12인실) 14만원/9만8천원

숲속의 집(15인실) 18만4천원/12만9천원

테라스하우스(8~9인실) 12만원/8만4천원

시나래마을(8~9인실) 14만원/9만8천원

산림휴양관(4인실) 5만3천원, (5인실) 7만7천원/5만4천원,

(8인실) 10만원/7만원, (13인실) 16만5천원/11만6천원,

(13인실(복층)) 17만원/11만9천원

숲 속 수련관의 다목적강당

4시간 이내 20만원, 8시간 이내 30만원

숲해설 프로그램은 11월 중순까지 주 5일(월·화·금·토·일), 하루 2회(오전 10~11시/오후 4~5시) 무료로 운영된다.

[문의]

알프스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 043-543-1479

[가는 길]

